

도시재생 주민공모 참여 단체 선정

무주군, 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도시재생·공동체 활성화 개선 추진

무주군이 각 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 참여 주민 공모 결과 실천 나림마을 변영회 등 모두 5개 주민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이란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개선을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무주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두 번째로 추진되는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이다. 이들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팀당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20년에 선정됐던 '해노리 놀이 연구회', '무주 토종 연구회', '나림마을 변영회' 등 3개 팀은 이번 공모에도 선정돼 역량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나림마을 변영회'(설천면)는 2020년도에 농, 산촌 마을인 나림마을에 아크릴과 형광 페인트, 블랙 라이트를

이용, 청정 무주의 자연 생태를 표현한 입체벽화를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사업으로는 전년도 사업과의 연계로, 정자나무와 느티나무에 설치된 노후화된 LED 조명 교체설치 및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마을 행사 공간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노리 놀이 연구회'(무주읍)는 무주군 각 읍·면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놀이 활동기를 양성하는 데 사업을 초점을 맞췄다.

'무주 토종 연구회'(안성면)는 지난해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전시회, 토종농사 토크쇼, 토종농업 보고서 제작 등 무주의 토종씨앗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귀농인들에게 토종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밖에 새롭게 선정된 단체인 '무주

군민사랑협의회'(설천면)는 평지마을 일원 골목길에 100개의 화단 조성 및 화단 중앙에 만국기와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온라인 동영상 제작해 마을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협동조합 공간'은 무주군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역할을 토대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개성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아트 프리 마켓을 개최해 소통 한마당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들 단체는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들을 펼치게 된다.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김혜성 센터장은 "지난해 주민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참여한 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올해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는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등 부처 및 전북도 2차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장수군, 신규사업 발굴 보고·추진계획 수립·추진방향 등 논의

장수군은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등 부처 및 전북도 2차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부터 신규사업 발굴 보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 활동을 해온 주요사업들의 중앙부처별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대응사업을 살펴보면, 장수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495억원), 장수군 농촌협약 사업(428억원), 장수지구 불명수 저감사업(242억원), 장안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200억원), 동서화합을 위한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196억원),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126억원) 등 42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15억원,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3,515억원이다.

장영수 군수는 "각 부서는 8월말까지 2022년도 국비 건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활동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 역점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도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 산업 및 스마트 시티 조성 등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미래 대규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 개최

선발된 사업체는 역량 강화·컨설팅·성장 단계별 예산 지원

진안군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진안 산악초전시관 회의실에서 '2021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진안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 ▲체험 등의 관광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설명회는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있는 단체나 주민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규 주민사업체 신청 및 지원 자격, 지원 사항, 주요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모집하는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적으로 360여개 주민사업체이며 진안군은 10개 내외로 사업체를 모집한다. 선발된 신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역량 강

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재료비, 상품 포장 등),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의 성장 단계별 예산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창업 준비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사업체는 사업 시행에 도움을 주는 매니저인 관광두레PD와 협의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관광두레 이메일(dure@kant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 주민사업체는 서류심사를 거쳐 아카데미과정을 실시한 후 9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무주군이 경영악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탠다. 무주군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난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법(재)보증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제외되며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4월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으로 육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였다.

또한,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게 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사업체 대상 2020년 경제총조사 실시

진안군은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안군 2,716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경제통계의 뿌리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통계이다.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사업실적 등 13개 공통 항목과 재고액, 연간 생산량 등 24개 특성항목이며 조사원들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팩스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ecensus.go.kr)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경제총조사 상황실(080-700-2020, 430-2650)로 문의하여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드림스타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나서

장수군은 14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청결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를 추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는 평소 물건정리 및 청소 등 생활환경 관리가 어려워 생활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아동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와 해충방역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에는 장계면을 비롯한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성건축 등 8개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진행했으며, 약 30여명이 참여해 대상자의 집안 내부수리 및 정리정돈, 외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참여단체는 등은 대상자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을 위해 손상된 벽지와 장판 교체, 냉장고, 침대 등을 후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먹거리 실태조사 위한 간담회 열어

진안군은 14일 관내 각 학교 영양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복지시설 급식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진안군 먹거리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여 기관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2회에 걸쳐 시간을 나누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 4월 착수한 진안군 푸드플랜 예비계획 컨설팅 업체의 발제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푸드플랜 사례를 발표하며 참석자들에게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각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급식 운영현황, 식재료 구매과정, 구입액,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소비 기반 및 규모를 분석하고 먹거리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푸드플랜을 수립하고자 간담회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읍면 리더 설명회는 물론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청회 등 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하반기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구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5,000만 원)를 확보해 본격적인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과 실증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4월 이전 진안형 푸드플랜을 공표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